

국·공립합창단 종교편향 실태 조사

차 례

I. 머리말.....	1
II. 국·공립 합창단의 인적 구성	3
III. 국·공립 합창단의 연주 내용과 성향.....	5
IV. 국립합창단의 윤리규정과 현실.....	16

I. 머리말

지난 6월부터 불교 언론을 통하여 공립 합창단의 종교편향에 대한 집중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기까지는 공립합창단에 대한 불자들의 불만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 불만의 일부가 언론과 메스컴을 향한 제보가 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이러한 불만을 지닌 사람들은 “불교 중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책과 불만·원망의 목소리도 쌓여오고 있었다. 이러한 원성이 결국 언론의 집중 취재와 보도로 표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종교평화위원회와 함께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내 한국불교음악학회에 이에 대한 자료 통계와 분석 작업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의뢰해 작성하였다.

1. 연구목적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공립(국립·시립·도립)합창단의 공연 내용을 파악하여 종교편향성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함.

2.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내용

○ 조사대상 :

가. 시간적 범위: 2018년- 2021년 6월까지의 연주 내용

나. 대상 범위: 합창단의 특성상 광역시를 비롯하여 주로 도시 지역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단체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

지 역	시립합창단
전 국 순 회	국립합창단
서울 · 경기	서울 · 인천 · 수원
강 원 도	춘천 · 원주
충 청 도	청주 · 아산 · 천안 · 대전
영 남 지 역	대구 · 구미 · 부산 · 창원
호 남 지 역	전주 · 정읍 · 광주 · 목포
제 주 지 역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국 · 시 · 도립 합창단 총 19 단체	

○ 조사내용

- ① 국립합창단과 시·도립합창단의 운영현황
 - 합창단 조직구성(대표, 지휘자, 구성 단위)
- ② 프로그램 구성 내용
 - 전국 국·시(도, 군)립 합창단 공연 목록전수조사
 - 합창단 공연 횟수
 - 합창단 공연곡 목록 및 레퍼토리 선정 주제

2) 연구 일정: 7월 14일 ~ 9월 10일간 진행

3) 조사 기관: 불교음악원

II. 국·공립 합창단의 인적 구성

1. 합창단의 공립화와 인적 구성

1) 합창단의 국·공립화

오늘날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 국·공립합창단만 60여개 단체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공립합창 단체다. 이러한 음악 단체의 출발은 해방 전후 유입된 서구 문화가 그 시발점이다. 합창운동의 시작으로 보면 불교와 기독교가 그다지 차이가 없었지만 오늘날 국·공립합창단은 완벽한 기독교화가 되어있다. 이들의 국·공립 합창단으로 자리잡은 역사는 1973년 국립합창단의 공립화가 그 출발점이었다. 국립합창단의 초대 지휘자를 지낸 나영수는 현재 전국 국·공립합창단 지휘자 연합인 (KCDA)의 고문 중 가장 원로이다.¹⁾

한국 합창지휘의 1세대의 대표 나영수는 외국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 음악도였지만 이후의 세대는 모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 후 전국 각지의 합창단 지휘자를 맡게되었다. 이들이 유학하며 배운 합창곡은 모두 기독교곡이었으므로 이 무렵부터 한국의 합창계는 기독교 단체로 전환되어 갔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일반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절대적 우위에서 자신들이 외국에서 배워온 악곡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성역화하였고, 그것이 곧 그들의 특권이자 범접할 수 없는 예술성이라는 등식이 되었음을 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오늘날 합창을 하는 성악가들은 “외국 노래보다 한국 노래 부르기가 더 어렵다” 는 말을 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초대 국립합창단장과 지휘자를 맡으며 한국합창총연합회와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나영수도 “우리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더 바르고 잘 부르는 것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는 지적을 하고 있다. ²⁾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의 선택이 중요한데 비해 우리 지휘자들의 안목이 깊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다” “합창 레퍼토리의 공유로 직업 합창단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 모두 사는 길” 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공립합창단의 창단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돈할 수 있다.

1) 『음악춘추』, “합창지휘자 나영수” 인터뷰. 글·배주영 기자, 2013. 4. 15.
<https://cafe.daum.net/jynart/R4V3/43?q=%EB%82%98%EC%98%81%EC%88%98%EC%A7%80%ED%9C%98%EC%9E%90>

2) 위의 인터뷰 내용 인용 및 , “지휘자 나영수 선생과의 대화”, 2006. 5. 23. 대담자 탁계석.
<https://cafe.daum.net/kdubelcanto/33Ot/7?q=%EB%82%98%EC%98%81%EC%88%98%EC%A7%80%ED%9C%98%EC%9E%90>

· 국립합창단 1973년 전문 합창단이자 국립기관으로서의 효시. 200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5회의 정기연주회와 60여 회의 기획연주, 지방연주, 해외연주, 외부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공연 진행.

· 서울시립합창단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창단

1999년 7월 1일,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으로 민영화하면서 서울시합창단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립으로 지칭)

· 부산시립합창단

1972년 창단되어 지금까지 18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600여회의 초청 및 순회연주회

· 인천시립합창단

1981년 창단되고 1995년 윤학원(현 국립합창단 지휘자 윤의중의 부친) 전 예술 감독에 의해 재 창단된 후 인천 뿐 아니라 기독교 합창음악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였고, 세계 합창 연맹 (IFCM)과 미국지휘자 협회 (ACDA)등과 연계한 활동.

· 대구시립합창단 1981년 5. 1. 창단

· 전주시립합창단 1966년 6월 천길량 교수에 의해 창단연주.

· 광주시립합창단 1976년 시민합창단으로 발족, 1978년 초대 지휘자 석봉룡

· 대전시립 1981년 창단

· 수원시립 1983년 창단

· 서귀포시립합창단 1987년 창단. 이하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2) 인적 조직화

1973년 국립합창단이 공적 단체로 자리 잡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합창단은 연합회를 결성하여 조직화와 활동의 체계화를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국·시립 합창단 지휘자들의 조직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이하 KCDA로 표기함)는 국립합창단 지휘자로 구성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단체라고 할 수 있다.

KCDA의 구성을 보면, 고문,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약 57명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합창 관련 실질적 결정권자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력과 활동 배경을 보면 절대 다수가 개신교회나 성가대 혹은 신학대학 교회음악의 배경을 지니고 있고, 가톨릭은 극 소수여서 사실상 개신교 합창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2. 현직 국·공립 합창단 지휘자 기독교 배경

1)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국가 행사를 비롯하여 전국 순회연주와 각종 합창대회를 주관하므로 한국 합창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각 지방의 시립합창단은 국립합창단을 앞 다투어 초청하며, 그 연주를 추종 내지는 모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서울 및 전국 시·도립 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인적 배경

국립 혹은 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가 되기까지는 전국을 다니며 객원지휘하며 경력을 쌓는 것이 모든 지휘자들의 공통된 이력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 혹은 지방의 지휘자들도 국립합창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므로 이들의 인적 배경과 활동 배경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국립합창단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를 보면, 전원이 교회음악과, 기독교 재단의 교회음악 관련 분야 활동 내지는 재직을 겸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전국 국·공립 합창단은 기독교 단체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이다.

Ⅲ. 국·공립 합창단의 연주 내용과 성향

1. 공립합창단의 연중행사 및 연주

국·공립 합창단이 국가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은 의무적으로 3.1절, 광복절 시즌에 맞는 악곡을 연주해야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연주를 해야 한다. 이들의 연중 일정을 보면 정기연주회의 경우 국립합창단은 5회, 시립합창단은 2~3회, 그 외에 기획 및 특별연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의 합창단 활동을 보면 국립합창단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이유는 국립합창단의 연중 공연 횟수가 서울을 비롯한 시립합창단에 비해 4~10배 이상으로 여타 단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연주 횟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방순회 공연이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에서는 국립합창단초청연주회를 하거나 국립합창단과 합동 연주를 개최하는데, 이러한 연주를 통하여 시립합창단은 국립합창단을 추종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2018~2021 상반기 국·공립 합창단 연주 횟수³⁾

국립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99회	서울 24회	춘천 8회	청주 17회	대구 19회	전주 15회	서귀포 13회
	인천 14회	원주 22회	아산 4회	구미 7회	정읍 5회	
	수원 15회		천안 3회	부산 23회	광주 17회	
			대전 33회	창원 23회	목포 5회	

1)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의 순회연주 양상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순회연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었고, 2019년 후반에는 일부 연주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진 2018년도 순회연주를 보면, 전 곡이 기독교 예배곡으로 연주되는 것이 빈번하였고, 그 가운데는 목사의순교기념 연주, 2019년 군산에서 이루어진 국립합창단초청연주회는 군산 드림 교회 후원이 있었고, 이때 연주는 기독교 찬송음악으로 채워졌다. 2018년도 국립합창단의 순회연주 일정을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합창단의 2018년 지방 순회공연

연주 내용	내 용	곡목 편향정도
헨델 메시아	서산, 목포, 포항, 평택	100% 기독교
베르디 레퀴엠	제주·김천	100% 기독교
순양원목사 순교기념 연주회	여수	100% 기독교
헨델의 닥시트 도미누스 외	서천	50% 이상 기독교
카르미나브라나	군산	예외적 선곡

이 외에 국립합창단의 연주 분표를 보면, 3.1절, 광복절과 같은 국가 행사나 각 계층의 합창대회를 수반하는 경우는 종교 편중이 불가한 경우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국립합창단의 선곡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정기연주회, 지방 순회 연주, 그리고 데뷔연주회였다. 젊은 지휘자가 데뷔하는 연주회의 경우 국립합창단이 선곡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국·공립 합창단 지휘자의 인적 내역이 기독교 교회음악 전공, 혹은 기독교 신자들로 구성되므로 데뷔연주의 주된 레퍼토리

3) 위 표에서 서울의 2021년은 연주 일정이 부족하여 7월 1일 연주 1회 포함시킴. 또한 당해 연도가 아닌 경우 일부 연주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가 미사곡 내지 기독교음악으로 이루어지고, 데뷔하는 지휘자들은 기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2018년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립합창단의 연주 성격을 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합창단 2018년도 연주 내용과 분석

연도	성격	내 용	곡목 편향 정도	횟수
2018	정기	전곡 기독교미사 2회 일부 예배미사 60%	기독교 80% 이상	5
	순회	부산·함양·서천·제주·군산·김천·서산·여수·목포·평택2·평창·안동·포항	기독교 80% 이상	13
	데뷔	장민혜, 김혜인	주로 기독교 악곡 지휘	1
	대회	일반·청소년·고교·시니어 합창경연대회	선곡 행사할 수 없음	4
	행사	3.1절, 8.15 등 행사, 평창패럴림픽 등	종교 편중 불가	3
합 계		기독교 곡 선정이 불가피한 행사 외에는 기독교 100% 내지 필수 선곡		43

국립합창단 2019년도 연주 내용과 분석

연도	성격	내 용	곡목 편향 정도	횟수
2019	정기	전곡 기독교미사 3회, 나머지 2회 찬송가 편성	기독교 80% 이상	5
	순회	서천·군산·대구·구미·익산·이천·서귀포·강릉	80% 이상 기독교 음악	8
	데뷔	하대근(교회음악과), 정은주(기독교재단 한세대)	교회음악 지휘자 등단	1
	합창	제7회 합창경연대회(일반)	선곡 행사할 수 없음	1
	행사	3.1 운동 2회, 평창동계올림픽2회	종교 편중 불가	4
합 계		기독교 곡 선정이 불가피한 행사 외에는 기독교 100% 내지 필수 선곡		33

국립합창단 2020년도 연주 내용과 분석

연도	성격	내 용	곡목 편향 정도	횟수
2020	정기	이영조 미사곡 포함2회, 전곡 헨델 메시아	기독교 80% 이상	2
	순회	코로나 상황으로 순회 연주 불가	연주 불가	0
	데뷔	제21회 데뷔콘서트, 이수범, 이보미	기독교 미사 합창곡	1
	대회	합창경연대회(일반)	선곡 행사할 수 없음	1
	행사	광복절 합창축제	종교 편중 불가	1
합 계		기독교 음악 선정이 불가피한 행사 외에는 기독교 100% 내지 필수 선곡		14

국립합창단 2021년도 상반기 연주 내용과 분석

연도	성격	내 용	곡목 편향 정도	횟수
상 반 기	정기	전곡 미사곡1회, 미사곡 50% 이상 1회	기독교 80% 이상	2
	순회	전곡 기독교 2회 2회 판명 불가	기독교 편중 50%이상	4
	행사	3.1절	종교 편중 불가	1
합 계		자율편성 가능한 순회 및 정기연주회는 전곡 기독교 50% 이상		9
총합계		기독교 음악 선정이 불가피한 행사 외에는 기독교 100% 내지 필수 선곡		99

2) 서울·경기·강원 지역 시립합창단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립합창단의 연주가 99회인데 비하여 시립합창단은 4 ~ 20회 내외이다. 그런데 이들을 한데 묶어 보면 국립합창단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연주 내용과 기독교곡 선곡의 양상은 흡사하다. 연주 패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국립과 서울 지역에서 종교편향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소도시 보다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 합창단일수록 종교편향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주회 타이틀과 성격으로 보면 정기연주회에서 종교편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시민을 찾아가는 행사, 3·1절 혹은 광복절을 테마로 하는 행사의 경우 기독교 선곡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강원 시립합창단의 연주 양상

단체	연주 성격	내 용	횟수	곡목 편향 정도
서울 24회	정기연주회	명작시리즈=미사.예배곡	11회	특별연주회 매회 전곡 내지 필수선곡 70% 이상 기독교
	특별연주회	영화음악, 일반가곡, 3.1 주제 외	12회	
인천 14회	정기연주회	모든 연주를 정기연주회로 통합	14회	매회 기독교 성가. 찬송 예배. 미사곡 70%이상 편성
수원 15회	정기연주회	기독교 미사곡과 성가 위주	13회	취임연주회, 정기. 기획 연주회 70% 이상 기독교
	기획·취임	기획연주회1, 취임연주회1	2회	
춘천 8회	정기연주회	모든 연주를 정기연주회로 통합	8회	전곡 기독교 미사 혹은 60% 이상 기독교 찬송
원주 22회	정기연주회	기독교 미사곡과 찬송 비중 높음	11회	성가,외국.한국 성악곡 중 기독교 찬송 60%이상
	기획연주회	성악곡 중에 성가 편성 필수	11회	

충청지역 시립합창단의 연주 양상

단체	연주 성격	내 용	횟수	곡목 편향 정도
청주 17회	정기연주회	미사곡, 성가 비중이 높음	14회	122회 기획연주 전곡 기독교 전체 기독교 비중 30%이상
	특별연주회	오페라, 일반곡 분포 다소 높음	3회	
아산 4회	정기연주회	모든 연주를 정기연주회로 통합	4회	프로그램 파악 불가인 가운데 기독교 30% 이하로 추정
천안 3회	정기연주회	모든 연주를 정기연주회로 통합	3회	프로그램 파악 불가인 가운데 기독교 30% 이상으로 추정
대전 33회	정기연주회	기독교 미사, 성가 비중 높음	16회	전체 연주 중 60%이상 기독교 미사곡 내지 성가
	특별연주회	기획연주 11, 앙상블 및 기타6회	17회	

경북지역 시립합창단의 연주 양상

단체	연주 성격	내 용	횟수	곡목 편향 정도
대구 18회	정기연주회	기독교 미사, 성악 비중 높음	14회	Dixit Dominus 등 70% 이상
	특별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2, 송년음악회 2,	4회	선곡 제한으로 기독교 30%이하
구미 7회	정기연주회	기독교 미사, 예배곡 비중 높음	6회	미사곡 외 70% 이상 기독교
	특별연주회	혜화교회 한국&네덜란드 수교기념	1회	선곡 제한으로 기독교 비중 낮음

* 2015년 대구시립합창단은 종교편향 문제로 지휘자가 공석이 되어 안승태지휘자가 상임지휘자로 재임명된 바 있으며, 한용희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2021년에는 한국 창작 미사곡을 연주할 예정이었으나 대구불교계의 종교편향 문제제기로 연주를 취소한 바 있다.

경남지역 시립합창단의 연주 양상

단체	연주 성격	내 용	횟수	곡목 편향 정도
부산 23회	정기연주회	전곡 미사곡 등 기독교 비중 높음	13회	최석태 부산 사랑이야기 외 40% 이상 기독교
	특별연주회	행사성격으로 찬송가 비중 낮음	10회	
창원 23회	정기연주회	예수는 나의 기쁨.. 기독교 중심	12회	일반 테마 중에도 성가 편성 등 전체 중 기독교 비중 40% 이상
	특별연주회	테마 및 송년 연주회	11회	

* 부산시립합창단의 공연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CD음반 제5집, 제6집, 제7집이 “주 이름을 찬양해”, “메시아” 와 같이 기독교 찬송가집이다.

* 창원시립합창단 또한 2021년 5월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음반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멜론 음반을 통해 출시되었으며, 이를 공식 실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다.

* 창원시립합창단의 2018년 제000회 정기연주회를 객원 지휘한 모지휘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합창지휘를 전공하였고, 본 연주회의 객원지휘자 모지휘자는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한바 있으며 성결대학교 장신대 등에 출강하며 교회음악과 지휘를 강의한바 있다.

호남지역 시립 합창단의 연주 양상

단체	연주 성격	내 용	횟수	곡목 편향 정도
전주 15회	정기연주회	주로 기독교 곡으로 편성	9회	전체 중 기독교 비중 40% 이상
	기념·특별	건국 100주년 기념 및 기타	6회	
정읍 5회	정기연주회	모든 연주를 정기연주회로 통합	5회	일반적 테마에도 기독교곡 선정 전체 중 기독교 비중 40% 이상
광주 17회	정기연주회	주로 기독교 곡으로 편성	14회	일반적 테마에도 기독교곡 선정 전체 중 기독교 비중 60% 이상
	특별연주회	미국순회 기념, 기획, 송년	3회	
목포 5회	정기연주회	주로 기독교 곡으로 편성	4회	일반적 테마에도 기독교곡 선정 전체 중 기독교 비중 40% 이상
	기획연주회	어메이징그레이스 외 일반 악곡	1회	

* 전주시립, 광주공립에서도 기독교 곡의 종교편향 연주를 노골적이고도 과하게 연주함. 제주공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2019년-2021년 광주시립합창단 지휘 및 재위촉 연임 2023년까지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합창단의 연주 양상

단체	연주 성격	내 용	횟수	곡목 편향 정도
제주 13회	정기연주회	주로 기독교 곡으로 편성	10회	전체 중 기독교 비중 60% 이상
	특별연주회	신년, 국립과 교류 연주, 송년	3회	

2. 정기연주회

1)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 시립합창단의 연주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시민을 위한 행사, 국가적 행사 등에는 선곡의 한정이 있으므로 기독교 음악을 연주하기에 불가능한 환경이 많다. 그에 비해 정기연주회는 전곡을 기독교 예배곡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가끔 일반적 테마 ‘봄이 오는..’ ‘민족 화합’ ‘모던 타임즈’ 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찬송과 기도곡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기연주회야말로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과 예술의 정체성과 목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연주회였다. 본 조사에서 살펴본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9개 합창단체의 연주 경향을 보면,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합창단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본 항에서는 국립과 광역 및 제주 특별자치도의 서귀포합창단의 연주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분석

전체횟수	전곡 예배·찬송		부분 예배·찬송	
	2018년 5 회	모차르트 C단조미사 헨델 메시아	2회	탱고 미사곡과 일반곡 50% 창작합창의 기독교0%(세부사항 확인불가) 헨델 디시트 도미누 외 80% 기독교
2019년 5 회	레퀴엠 라단조 시편과 미사곡 헨델 메시아	3회	창작공모작 기독교0%(세부사항 확인 불가) G장조 글로리아 등 70% 기독교	2회
2020년 2 회	헨델메시아	1회	창작 미사곡 등 50% 이상 기독교	1회
2021 상반기 2 회	베토벤 장엄미사	1회	창작 미사곡 등, 50% 이상 기독교	1회
90% 이상 기독교 예배·찬송				

2)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서울은 사실상 국립합창단이 공립합창단이다. 세종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은 세종문화회관이 민영화되면서 그 명칭도 ‘서울시합창단’으로 개칭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서울시립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서울시합창단 또한 국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레퍼토리와 그 안에 내포된 기독교적 종교편향은 마찬가지였다. 이 외에 광역시에 속하는 부산·대구·광주, 특별 자치도인 제주시의 서귀포합창단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부산시립 이기선 상임지휘자는 2020. 6. 26일에 열린 취임연주회(제179회 정기연주회)를 100%로 기독교곡으로 연주하였다. 이때 연주된 도나 노비스 파첼(Dona Nobis Pacem) 시리즈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라틴어 기도문

이자 미사곡, 즉 기독교 예배 문구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 특별 출연한 피아노 연주자 모씨 또한 자신과 같은 소속인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였으며, 현재 부산시립합창단의 부 지휘자 또한 같은 소속이었다. 따라서 부산시립합창단은 곧 총신대학 부속 합창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인적 요인은 이들의 연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2021년에 행해진 제182회 정기연주회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타이틀로 행해졌는데, 이때 행해진 곡이 구약의 시편을 가사로 하는 번스타인의 ‘치체스터의 시’와 램브란트의 기독교 성화를 배경으로 한 ‘벨사발의 향연’이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찬송으로 시민을 위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요 도시의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 합창단 정기연주회 분석

구분	전곡 예배·찬송		부분 예배·찬송	
서울 11회	①떼데움, 레퀴엠, ②로시니, 푸치니 미사, ③시편 외 찬송가, ④모차르트 C단 조미사, ⑤Petite messa, ⑥슬픔의 성모 외 ⑦감림산 그리스도 ⑧브람스 미사 ⑨ 캐롤 및 성가	9회	①유관순 칸타타, 기독교 0% ②157회(2020.5.21.) 등록은 있으나 내용 파악 불가(코로나 영향)	1회
기독교 90% 이상				

3) 광역시 및 도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공립 합창단의 지휘자들은 전국을 순회하듯이 서로 이동하며 활동하였으므로 지역을 막론하고 이러한 성향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성분별 선곡 양상을 조사해 보니 신학대학 혹은 기독교 재단 출신일수록 기독교 음악의 분포가 높았고,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대학 출신은 상대적으로 기독교 찬송가 관련 선곡의 비중이 낮았다.

부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분석

구분	전곡 예배 · 찬송		부분 예배 · 찬송	
부산 13회	①미사1991 ②브람스 독일 미사곡③글로리아④베토벤 합창교향곡 ⑤ Lamentations of Jeremiah 외 ⑥ 치체스터 외 ⑦베토벤 합창 외 성가 2회 ⑧ 번스타인 , 치체스터 외	9회	① 여인과 사랑, 미사곡 40%기독교 ② 미사곡과 도라지꽃 70% 기독교 ③시온주님, 최석태 기독교 50% ④ 윤동주, 레미제라블 기독교0%	4회
80% 이상 (예배·미사·성경·찬송)				

대구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분석

구분	전곡 예배 · 찬송		부분 예배 · 찬송	
대구 14회	①안식을 주소서 ② 세 가지 기적 ③미사곡 시리즈 3회	3회	①슈베르트 겨울나그네 기독교0% ②주께서 말씀하셨다 외 80%기독교③시인의 사랑 0% ④ 영원한 빛 외 40%⑤주께서 말씀 50%이상, ⑥영원한 안식 회 60% ⑦수퍼스타 등 50%, ⑧포레 미사곡 등 80%⑨ 고향의 봄 등 0% ⑩히브로 노예합창 외 50% ⑪아련 외 기독교 0%	11회
67% 이상 기독교(예배·미사·성경·찬송)				

광주시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분석

구분	전곡 예배 · 찬송		부분 예배 · 찬송	
광주 14회	①요한수난곡 ②평화를 위한 미사(5.18 위로) ③헨델 메시아 3회	3회	① 진달래꽃, 주님은 찬사를... 기독교 30% ,②라우다 예루살렘 외 20% ③ 종말의 날 등 40%, ④ 크리스마스 성가 80% ⑤Abendlied외 50% ⑥ 스타 외 50%, ⑦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외 80% ⑧ Prayer 등 10% ⑨나의 눈물 등 10% ⑩임마누엘 40% ⑪ 떼데움 등 50%	11회
55% 이상 기독교(예배·미사·성경·찬송)				

제주도립 서귀포 합창단

구분	전곡 예배 · 찬송	부분 예배 · 찬송	
서귀포 10회	①독일 레퀴엠 ②C단조 미사 ③Rejoice in the lamb	3회	①한국합창 0%기독교, ②치체스터 등 70%이상 ③ 헤델 디 시트 등 70%이상 기독교 ④ 노들강변 등 0% ⑤ 환희송가 등 60%이상 ⑥ 주님의 기도 등 50%이상, ⑦재즈미사 등 30% 이상 기독교
58%이상 기독교 (예배·미사·성경·찬송) (0% 중에는 미 파악된 내용 있어 실제로는 기독교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12월2일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제49회 정기연주회에서 취임연주회를 하였다. 비탄의 노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광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크리스마스 캐롤 등의 기독교 찬양곡이 80% 이상으로 추정되는 취임 연주회였다.

3. 라틴어로 은닉된 기독교 음악

국립합창단을 비롯하여 각 시도 공립합창단의 프로그램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없는 영어 제목이 즐비하다. 이들은 대개 라틴어로 된 기독교의 고전 내지는 창작 예배곡들이다. 국·공립합창단에서는 라틴어로 된 악곡을 통하여 자신들의 연주행위를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라틴어가 지니는 상징성이 있으므로 개신교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후세의 작곡가들에 의해 라틴어 가사가 기독교곡으로 쓰이고 있다.

국·공립합창단이 연주하는 라틴어 제목의 악곡 중에 빈번하게 등장한 것이 “떼데움(Te Deum)” 과 “도나 노비스 파첸(Dona Nobis Pacem)” 이었다. 신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떼데움’ 은 삼위일체사상을 비롯한 교부신학과 교회음악을 정립한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비롯된다.⁴⁾ 한편 “도나 노비스 파첸” 의 ‘Dona’ 는 “지배하다” “이끌다” 혹은 ‘군주’ 로도 번역될 수 있는 어원으로, 일본사람들이 ‘딸림음’ 으로 번역한 ‘도미난트’ 와 같은 어원이다. ‘Nobis’ 는 우리에게, ‘Pacem’ 은 영어 Piece와 같은 어원 ‘평화’ 를 뜻하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공립합창단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미사곡 제목이다. 미사곡은 5개 내지 6개의 부분(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곧 가톨릭 전례의 순서

4) 상세한 내용은 윤소희, 「교부들의 음악」(『문명과 음악』, 맵씨터, 2019, pp250~271) 참고.

이기도 하다. 첫 곡 기리에(Kyrie 자비를 주소서)에, 이어서 글로리아(gloria 영광송), 크레도(Credo 신앙고백), 상투스(Sanctus 거룩하시다), 아누스 데이(Agnus dei 하느님의 어린양) 혹은 베네딕투스(Benedictus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라틴어 예배문구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옛 인 페라 팩스”는 영광송의 첫 구이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뜻으로 단어를 풀어보면, “Gloria 영광 in excelsis 하늘에 계신 Deo 신, Et in terra 땅에는 Pax 평화)로 이루어져있다.

예배순서와 미사곡

예배순서	제 목	내 용
사제입장	입당송	
첫 순서	기리에	Kyrie, eleison...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둘째순서	글로리아	Gloria in excelsis Deo...하늘 높은데서 하느님께 영광!
셋째순서	크레도	Credo in unum Deum...한 분이신 하느님을...
넷째순서	상투스	Sanctus...거룩하시도다...
다섯순서	베네딕투스	Benedictus...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여섯순서	아누스데이	Agnus Dei...하느님의 어린 양
사제퇴장	퇴당송	

IV. 국립합창단의 윤리규정과 현실

오늘날 한국 국립합창단을 대표하는 국립합창단의 윤리규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합창단은 합창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국립합창단이 되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국립예술단체로서 국가발전에 대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다하여, 전문예술단체로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을 다한다.

넷째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여섯째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위의 조항에서 첫째 조항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이다. 불교는 삼국시대 이래 한국문화의 뿌리이자 토양으로 존재해왔다. 그런데 국·공립합창단은 기독교곡에만 충실하므로써 이 나라에 유입된지 1세기 남짓되는 외래 종교의 선교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합창단의 지방 순회공연은 선교여행을 방불케할 정도로 예수 찬양과 기독교 신앙을 고양하는 레퍼토리로 짜여져 있고, 각 지방 공립합창단은 국립합창단의 연주를 추종하고 모방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 합창단은 국가의 예산으로 혜택을 누리며 공적 합창단으로 활동하는데 비해 불교합창단은 완전히 국가의 음악지원에서 배제되어 자력의 힘으로만 합창제를 열고, 활동을 유지해온 것이다. 따라서 불교합창은 극도로 불공정 불평등의 위치에 놓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梵語辭典』, 日本 京都 : 河北印刷株式會社, 昭和53.
- 『देववाणीप्रवेशिका』, USA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9.
- 『공동번역 신·구약 성서(가톨릭용)』, 서울:대한성서공회, 1978.
-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편,
서울: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 『A History of Western Music』, USA: The Norton, Anthology of western music,
Third Edition, 1996.
- Richard H. Hoppin, 『Anthology of Medieval Music』, New York: Norton&Company.
D.E.Cardine, 이창룡 역, 『그레고리오 성가기호학』, 서울:세종출판사, 1996.
- R.H.Hoppin저, 김광휘 역편, 『중세음악-그레고리오 성가와 단선율의 세속 음악-』,
서울:삼호출판사, 1992.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014 찬불가합창곡집』, 조계종출판사,
2015.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선법가』, 한마음선원출판부, 2010.
- 대한성공회 공도문개정전문위원회, 『성무일과-시편·송과』, 서울:대한성공회
출판부, 1963.
- 박범훈, 『한국불교음악사연구』, 장경각, 2000.
- 서운재 엮음, 『찬불가』, 여시아문출판사, 1995.
- 안승철, 「한국 근대 찬불가 연구-백용성 찬불가를 중심으로-」,
『불교음악문화』 창간호, 한국불교음악학회, 2021, pp255~280.
- 운문승가대학, 『찬불가』, 운문승가대학, 불기2542(2009).
- 윤소희, 「선법가의 운용 실태와 미래 방향」, 『한마음연구』 제6집,
대행선연구원, 2021.
- _____, 『문화와 음악』, 서울:맵씨터, 2020.
- _____, 『문명과 음악』, 서울:맵씨터, 2019.
- _____, 『한중불교음악』, 백산자료원, 2007.
- 이흥기, 『미사전례』, 왜관:분도출판사, 1997.
- 차인현, 『그레고리오성가』, 서울: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1.
- 한국순교복자수도회 편, 『그레고리오 성가 이론』, 서울:대림출판사, 198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소성무일도』,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미사통상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1996.
한보광, 『용성선사연구』, 감로당, 1981.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122>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33>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00>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24>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35>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58>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447>

<불교신문> 2243호, 2003년. 7월 8일자. 안직수기자.

『음악춘추』, <합창지휘자 나영수> 인터뷰, 글·배주영 기자/ 사진·김문기 부장,
2013. 4. 15.

<https://cafe.daum.net/jynart/R4V3/43?q=%EB%82%98%EC%98%81%EC%88%98%EC%A7%80%ED%9C%98%EC%9E%90>

<지휘자 나영수 선생과의 대화>, 2006. 5. 23. 대담자 탁계석.

<https://cafe.daum.net/kdubelcanto/33Ot/7?q=%EB%82%98%EC%98%81%EC%88%98%EC%A7%80%ED%9C%98%EC%9E%90>

김규현(전 한국음악비평가협회 회장, 작곡가) KCDA 비판, 게재(2019. 9. 24), 검색
(2021. 8. 27) <https://cafe.daum.net/choral/5m69/626?q=KCDA>